

07

눈에서 마음으로

- 1 미술 감상의 의미와 단계를 알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2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작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탈리아 여자
(캔버스에 유채/92.1×73.5cm/1895~1900년경)



“
작품의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을
아래에서 골라 보자.
친구들은 어떤 단어를
골랐을까?
”

부끄러운 당당한 불쾌한 느긋한 어리둥절한 무기력한 서운한 냉담한
초조한 위축된 낙심한 울컥한 서글픈 곤란한 지친 외로운 권태로운
불편한 고민스러운 지겨운 평온한

미술 감상의 즐거움

미술 감상은 작품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즐기는 활동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감각적 즐거움을 느낀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끊임없이 확장된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탐구하다 보면 세상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또 감상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적 안목을 길러 보자.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느낌!
신선하고 짜릿해!



▲ 생팔(Saint-Phalle, Niki de/프랑스/1930~2002)
삼미신(폴리에스터 레진에 채색/67.3×63.5×61cm/1994년)

미술 작품과 친해지는 단계

미술 감상은 '잘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첫인상만으로 친구의 모든 면을 알 수 없듯,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해 보면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을 스스로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상 단계에 따라 작품과 친해져 보자.



1

작품과의 첫 만남

나의 반응과 호기심에 주목하기

작품의 첫인상은 어떤가?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나 장면이 있다면 적어 보자.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작품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께 유추해 보자.



체육 대회에서
우리도 저렇게 뛰었잖아!
작품의 에너지가 엄청나지?

맞아. 색의 대비가 강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 놀데(Nolde, Emil/독일/1867~1956) 격렬하게 춤추는 아이들(캔버스에 유채/73×88cm/1909년)

2

자세히 관찰하기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특징 분석하기

무엇을 그렸을까?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소녀 네 명과 멀리 있는 소녀 한 명이 보여. 캡션을 보니 놀데가 1909년에 그렸고 제목은 '격렬하게 춤추는 아이들'이야.

작품에서 돋보이는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재료와 표현 방법의 특징은?

주로 원색을 사용했어. 붓 터치가 빠르고 거칠게 지나간 흔적이 보이네. 두꺼운 유화 물감이라 더 그렇게 보이냐 봐. 얼굴 표정을 묘사하긴 했지만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

3

의미 탐구하기

제작 배경을 조사하고 주제 해석하기

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회, 정치, 문화도 급속도로 변화했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낡고 오래된 관습에 저항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세계를 그리려는 예술가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 독일에서는 표현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

표현 의도와 주제는?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거나 미화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감정과 내면의 에너지를 드러낸 게 아닐까?

4

내면화하기

작품의 종합적 의미와 가치 생각해 보기

작품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인물과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색과 붓 터치만으로 역동적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놀라워. 자신의 강렬한 표현 의지를 개성 있게 표출하는 멋진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 작가의 열정이 내게 충분히 전달되는 작품이야.



작품의 내용과 형식 분석하기

미술 작품은 시각적 특성인 형식과 주제나 메시지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표현 재료, 조형 요소와 원리 등에 따라 시각적 특성이 달라지면 그것으로 드러내려는 내용도 영향을 받는다. 그려진 대상이나 사건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작가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의도는 무엇일지 헤아려 보자.

작가가 이렇게 교묘하고 복잡한 구성 방식으로 표현한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을 그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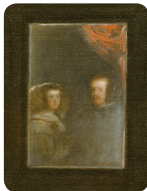
궁전에 있는 화가의 작업실에서 큰 이젤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 옆으로 여러 사람이 보인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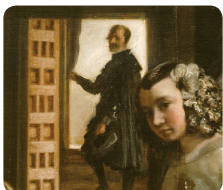
어린 공주는 뾰루지같은 표정을 짓고 서 있어.



시녀가 무릎을 꿇히고 물을 건네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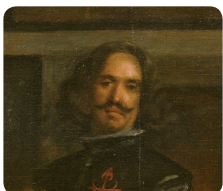
뒤쪽 거울을 봐! 왕과 왕비의 모습이 보이지?



열린 문으로 방 안을 지켜보는 경호원이 보여.



키 작은 여인과 소년은 누구일까?



화가는 어떤 표정을 지은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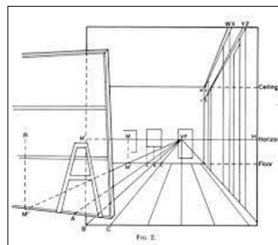
수녀와 시종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까?



▲ 벨라스케스(Velázquez, Diego/에스파냐/1599~1660) **시녀들**(캔버스에 유채/318×276cm/1656년) 펠리페 4세의 궁정 화가였던 벨라스케스는 당시의 인습에서 탈피한 독창적 구성으로 황실 사람들을 그렸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수수께끼 같은 작품을 남겼다.

어떻게 그렸을까?

3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에 펼쳐진 공간은 마치 3D 안경을 쓰고 보는 영화처럼 입체감이 느껴진다.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화가가 화면을 구성한 방식을 이야기해 보자.



화면의 절반 이상을 벽과 천장이 차지했어. 선 원근법과 명암 대비를 활용해서 공간이 넓고 깊게 느껴지지.

자세히 보니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붓 터치가 보여. 반짝이는 드레스의 질감이 생생하게 돋보이는 효과가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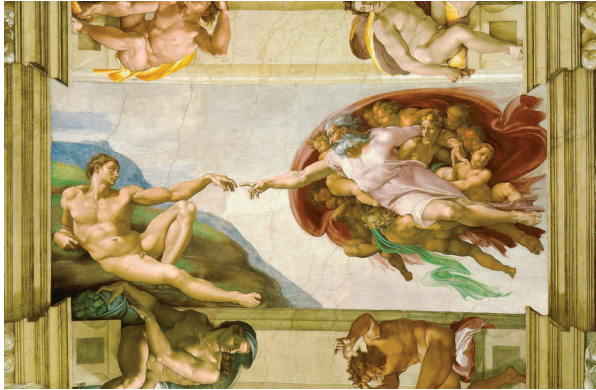
인물들의 시선과 서 있는 위치가 각각 달라. 작가는 등장인물의 개성을 살려 작품 속 공간에 복잡하게 배치했어. 마치 화면에 보이는 공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 분석하여 소개하고 나만의 아이디어와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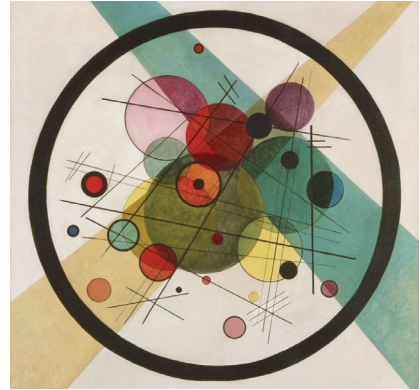
과정 1 작품 분석하여 발표하기

교과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고 작품의 매력을 분석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중 '아담의 창조'(프레스코/570×280cm/1511년)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하느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을 묘사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아요.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원 속의 원(캔버스에 유채/100×95.6cm/1923년) 구체적 형상이 아닌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한 추상화이다.



내가 고른 작품을 소개할게. 인간과 신의 손끝이 닿으려는 부분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니? 특히 인물의 역동적인 자세와 조각처럼 묘사한 근육이 멋져.

난 이 작품을 골랐어. 커다란 원 안에 원과 직선이 자유롭게 떠다녀. 노랑과 초록이 교차하는 부분은 광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의 방향이나 색이 조금씩 바뀌어 더 재미있어.



과정 2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재구성하기

분석한 작품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롭게 구성해 보자.



◀ 이준민(학생 작품) 경기 종료까지 최후의 1분(디지털 이미지/20×25cm) 비치 발리볼 경기장에 명화 속 인물을 배치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연출하였다.

▶ 우해은(학생 작품) 원 속의 원 속의 원(하드보드지, 우드록, 색지, 골판지, 낚시줄/40×40×40cm) <원 속의 원>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낚시줄에 매달린 원이 움직이며 작품에 활력을 준다.



단원 점검하기

- 미술 감상의 의미와 단계를 알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작품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가?

예술의 본질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 파울 클레 -